

전남 동부권

순천시, 엑스포 관람객 유치 행사 다채

여수 엑스포서 바다여행 신록의 순천서 축제 만끽



낙안읍성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순천의 멋과 볼거리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순천시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진 '제19회 낙안 민속문화 축제'와 '2012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제19회 낙안 민속문화 축제= '살아있는 전통문화, 찾고 싶은 낙안읍성'이란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선조들의 숨결과 옛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임경업 군수 부임 재현 행렬을 시작으로 수문장 교대의식, 제5회 전국 가야금 병창경연대회, 낙안읍성 투레놀이, 전통혼례식 등 문화 행사와 얼쑤 공연, 평양예술단 공연, 전통무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축제는 스테이지는 관람객이 아닌 옛 전통놀이와 일상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짚풀 공예, 길쌈시연, 천연염색, 전통 민속놀이, 큰 줄다리기 등 마당 행사와 전시 체험 행사를 함께 운영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 여행을 통해 운치를 만끽하여 다시 찾는 축

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세계적인 유산으로 인정받은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곳으로 1410m 규모의 석성과 선조들의 정취가 살아 있는 280여동의 초가집과 객사, 관아, 동헌 등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 220명의 주민들이 읍성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국 유일의 옛 도성인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마을 전체가 국내 최초로 사적 제30호로 지정돼 있는 관광명소이다.

◁2012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오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 순천 조례 호수공원 일원에서 '생명의 땅, 자연과 동화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체험·전시·수상·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인순이·오정해와 함께하는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짱뎡이 터널, 봄날, 솔로 탈출 미팅파티, 도시락 데이, 북카페, 테마거리 6080, 한 평 정원 경연대회, 봄을 담은 먹거리 장터, 푹딱딱 목공체험, 에코캠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 후 소리군 장사익과 함께하는 폐막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에코지오 페스티벌은 단순히 보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바탕 놀이로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홍보 붐을 조성할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낙안 민속문화 축제와 에코지오 페스티벌 축제를 통해 인간 삶의 필수 조건인 생태를 기본 축으로 그 사이사이에 문화적인 속살이 촘촘히 채워진 순천시의 진가를 관광객의 마음에 각인 시키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여천 시외버스정류장 무선 이전

버스 진·출입로 설치 교통혼잡 없애

여수 선원동에 위치한 여천 시외버스 정류장이 무선지역(롯데마트 여천점 건너편)으로 최근 이전했다.

그동안 여천 시외버스 정류장은 도로상의 버스 정차로 여수 시청로 구간 교통 체증을 불러일으키고 비좁은 대합실과 화장실, 낙후된 시설 등으로 하루 900여명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여수시는 박람회 성공개최는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향후 교통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는 무선지역에 정류장을 새로 구축, 이전했다.

이전된 시외버스 정류장은 시외버스 진·출입로를 별도로 설치, 시외버스 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요인을 없앴으며,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식 대합실과 승차장을 마련했다.

여천 시외버스정류장이 무선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외버스 노선도 좌수영로 방면에서 무선로 방면으로 변경됐으며, 시외버스 하차도 기존의

여천 제일병원을 비롯해 롯데마트 여천점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시외버스 노선 변경으로 기존 선원동의 여천 정류장과 석창 사거리의 유치한 석창 정류장에는 시외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장미 향 맡으며 심진강변 달린다

25일부터 곡성서 축제 20일 마라톤·걷기대회

곡성군은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심진강 기차마을에서 '2012 곡성 세계 장미축제'를 개최한다.

장미축제 기간에 기차마을 '1004 장미공원'에서는 500만 송이 장미가 화려한 자태와 향기를 뽐낸다. 특히 로즈화회 세계 연맹(WFRS)에서 선정된 세계 명품 장

미들도 볼 수 있어 관광객을 유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2012 곡성 세계 장미축제 기념 '장미 마라톤 및 걷기대회'가 20일 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린다.

국제 마라톤클럽 코리아와 한국 마라톤 여행기획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풀코스·하프코스·10km·5km·걸기 등 종목으로 구성된다.

남녀노소 누구나도 참여가 가능하며, 관광객 등을 위한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jm-marathon.c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화(1644-4219) 접수 가능하나, 참가비는 5km 만 원, 나머지 전 종목 3만원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5월부터 시작된 곡성 기차마을 축제 퍼레이드와 여수 엑스포의 영향으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며 "관광객 편의를 위해 기차마을 레일 펜션과 도립사 오토 캠핑장을 개장, 운영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의 음식·숙박에 관한 문의는 '곡성 엑스포 114팀'(061-360-7114)로 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김계정기자 kjkim@

고흥 청소년 우주센터

20일·내달 6일 '별잔치'

국립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이하 체험센터)는 20일과 6월 6일 2차에 걸쳐 '보들바다 별잔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월식과 행성 운동에 대한 입체 영상교육, 부분일식 등의 천문 관측, 천문학자와의 만남의 시간, 가족 우주복 사진촬영, 바늘구멍 사진기 만들기 등으로 알찬 프로그램 구성된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6월 1일까지 체험센터 홈페이지(www.nysc.or.kr)로 신청을 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체험센터는 참가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순천역과 고흥터미널에서 체험센터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체험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부분일식과 금성 태양면 통과 등의 천체관측 및 촬영, 천문학자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순천시,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순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가 주변에 대해 점심시간 2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왔으나 3시간으로 1시간을 연장 실시한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전북도, 수학여행단 15만명 유치

올 목표 달성... 하반기까지 20만명 예정

올해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한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를 방문했거나, 방문예정인 수학여행단은 15만2710명으로 올해 유치목표인 15만명을 초과 달성했다.

하반기 수학여행단을 포함해 연말까지 20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북도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그동안 서울·경기·부산·경북도 교육청과 수학여행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의 결과로 풀이된다.

수학여행 MOU를 체결한 4곳은 현재까지 8만4082명으로 전체 수학어

행단의 55%를 점유했다.

도는 하반기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학교에 수학여행 홍보물을 발송하고 수학여행 담당 교사 및 교감단 사전담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개별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세일즈를 펼칠 방침이다.

전북도는 수학여행 콜센터를 중심으로 각 시·군과 공조를 통해 체계적인 안내시스템 구축, 수학여행 전담 지도사 양성·지원, 공연·레크리에이션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신선처럼 마음 비우고 걸으세요

남원 원천~팔랑 4.3km

지리산 신선 둘레길 개통

남원시 산내면 원천마을에서 팔랑마을을 잇는 길이 4.3km의 도보길이 개통된다.

남원시는 19일 오전 10시 원천마을 주차장에서 '지리산 신선 둘레길' 개통식을 갖는다. 이날 개통식은 풍물패 갈다지와 길설 명, 신선길 탐방 순으로 진행된다.

해발 350m 고지대에 위치한 원천마을은 산촌의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기간에는 곰이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있는 형상의 '곰재'와 지리산 산신령이 천왕봉으로 가는 길에 마셨다는 '참샘'도 있다.

또 '지리산 신선 둘레길'은 원천마을에서 팔랑마을을 거쳐 철쭉 군락지인 바래봉까지 연결된다. 거리는 8km로 4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신선처럼 마음을 비우고 넉넉한 마음으로 지리산의 넉넉한 품을 만끽하자는 의미에서 지어졌다"고 말했다.



바래봉 철쭉 활짝

전국 최고의 철쭉 군락지로 손꼽히는 남원 바래봉(해발 1165m)을 찾는 관광객들이 절정을 이룬 철쭉꽃밭에서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느티나무·곰솔 간척지서 잘 자란다

농어촌공, 수목 재배 성과

바다에서 육지로 바뀌어 염분이 많은 간척지에서는 어떤 나무들이 잘 자랄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 농어촌연구원은 지난 2008년부터 김제시 광활면 간척지 일대에서 간척지에 서 수목생육에 대한 사전 시험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연구원은 사전 재엽작업 후 묘목 21개 수종을 심은 결과 느티나무·곰솔·메타세쿼이아 등 5개 수종

과 해당화·피라칸다 2개 수종이 잘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를 진행한 농어촌연구원 송재도 박사는 "3년이 지난 현재 메타세쿼이아의 경우 3m 이상 자란 상태"라며 "지반 위에 일반 흙을 복토해 수목 기반을 만드는 기존의 방법이 아닌 간척지 원지반 상태에 토양염도를 낮추는 신공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연구원은 올해부터 군산시 묘곡 300ha 일대에 재엽을 위한 배수로와 관계시설, 토양염분 자동 계

측시설 등을 조성해 2단계 시험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묘목 식재도 4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17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농어촌연구원에서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서울대 식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간척지 수목 시험재배가 성공적으로 나타나 향후 새만금 내부의 수목 수급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18~19일 '지평선 우리밀 큰잔치 마당'

'제4회 지평선 우리밀 큰 잔치 마당'이 18~19일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우리밀영농조합 주변 밀밭에서 열린다.

김제시 우리밀 영농법인(대표 이

재병)과 우리밀 경관보전 추진위원회, 향토산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밀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마당과 체험마당·우리밀 먹거리 마당·화합

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밀을 이용한 막걸리·국수·자장면·피자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를 비롯해 밀밭 미로체험·밀 타작·밀밭 걷기·밀밭 사진 찍기·밀서리 등 추억의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단신

전주시 '민원 콜센터' 222-1000 선정

전주시는 '민원 콜센터' 대표번호 공모결과 222-1000으로 선정했다.

시는 오는 12월 가동을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시장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콜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시장 7층에 11명의 전문 상담인력이 상

주해 민원에 응대할 예정이다. 시는 '민원 콜센터' 대표번호 공모에 이어 '민원 콜센터' 명칭을 공모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통문화 도시인 전주를 상징하면서 알기 쉽고 걸기 쉬운 '1000번'을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도서개발사업 평가 '최우수'

군산시가 도서 종합 개발사업 대상지역인 전국 19개 시·군에 대한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2010년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에 국비 등을 지원받아 총 41억9300만 원을 투자해 방파제, 마을진입

로 등 도서지역 기반시설과 해안 관광도로, 해안 데크시설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이영환(52) 어촌어항 계장이 2010년 특수상황 도서개발사업 성과평가 평가 결과 도서종합개발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시 평생학습도시 사업 선정

정읍시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2012년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3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3000만원을 더한 총 6000만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 중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발

효·효소관리사, 원예치료 교육사, 성인문해 교육사 3급 등 3개 자격증 과정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는 이달 초 교과부로부터 성인문해 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469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농특산물 수출협의회 창립

남원 농·특산물 수출협의회(회장 김호수)는 17일 창립총회를 갖고 해외수출 상품 개발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시장개척엔 나선다. 수출협의회는 16개 농·특산물 수출업체와 수출생산단체(농협)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교류는 물론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을 실시해 남원 농·특산물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수출기업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